

제 1 교시

## 국어영역

성명

수험번호

SMAKO

- 이 문제지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noqeli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술과 암술이 떠나고 꽃잎과 꽃받침이 떠나고  
꽃밭이 떠나고  
마지막엔 풀이 흔드는 작별의 손이 보이고  
인사도 없이 골목이 떠나고 길이 서있다.  
산소와 수소 사이에 호올로  
삼엽충의 발바닥과 오물 사이에서 호올로.  
- 오규원, 「길, 분명한 사건」 -

(나)

바다는 잘 육착한 폼을 뒤척인다.  
해협 밑 잠자리는 꽈 거친 모양이다.  
  
맑게 갠 새파란 하늘  
높다란 해가 어느새 한낮의 커브를 꺾는다.  
물새가 멀리 날아가는 곳,  
부산 부두는 벌서 아득한 고향의 포구인가!  
  
그의 발 밑,  
하늘보다도 푸른 바다,  
태양이 기름처럼 풀려, 뱃전을 치고 뒤로 흘러가니,  
웃깃이 머리칼처럼 바람에 흘날린다.

아마 그는  
일본 열도의 긴 그림자를 바라보는 게다.  
흰 얼굴에는 분명히  
가슴의 '로맨티지즘'이 물결치고 있다.  
- 임화, 「해협의 로맨티시즘」 -

(다)

공회(公會)는 이 학사 정운(李學士鼎運)의 자이다. 공회는 가난하여 돈이 없으므로 몇 이랑의 택지(宅地)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 정자를 소유할 수 있겠는가. 번계(樊溪)는 나의 별업(別業)이다. 정자와 누대와 물과 바위가 그윽하고 기이하여 공회가 자기 것인 양 아낀다. 때로 내가 와룡 폭포(臥龍瀑布) 아래서 머무를 때면 제집 오듯이 달려와 반드시 십여 일이나 머물다가 돌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슬퍼하며 돌아보곤 하였다. 폭포에서 동쪽으로 수백 보쯤 되는 곳에 작은 언덕이 가로질러

있다. 나는 때로 공회와 함께 그 꼭대기에 올라 경치를 굽어보았다. 언덕을 뒤로하고 집을 짓고 사는 백성이 있는데, 집이 대략 10여 칸쯤이고 위치가 꽤나 청정하였다. 노송(老松)이 섬돌과 뜰에 서려 있어 푸름을 손으로 딸 수 있을 정도이고, 밤나무 몇 그루가 뜰 안에 벌여 서서 무성하게 뒤덮고 있다.

공회는 매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떻게 이곳을 나의 소유로 삼아 어르신을 모시며 백 년을 길이 즐길 수 있을까요?”라고 하였다. 나는 “고인들은 ‘마음의 정자[意亭]’라는 것이 있었네. 이것에 유독 이름을 붙일 수 없겠는가.”라고 대답하고는 마침내 ‘공회정(公會亭)’이라 명명하였다. 그러자 친구 중에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공회정’이라 부르며 농담에 호응했고, 이 일을 모르고 단지 그 이름만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공회정이 실제로 있는 정자인 줄 알았다. 공회조차도 처음에는 누군가 물으면 웃으며 대답하지 않다가, 나중에 오래되어 그 질문이 귀에 인이 박힐 정도가 되자 말과 표정이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공회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공회의 일이 이와 같음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실질은 주인이 되고 이름은 손님이 되는 것이 옛 도(道)이다. 후세에는 그렇지 않아서 훔치는 것이 이름이니, 그것이 실제인지 반드시 살피는 것은 아니다. 배움이 없으면서 배웠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웠다는 명호(名號)가 그에게 돌아간다. 문장이 없으면서 문장으로 자부하면 문장이라는 직분(職分)이 그에게 돌아간다. 공적(功績)이 없으면서 공적이 있다고 자부하면 공적의 이로움이 그에게 돌아간다. 재주가 없으면서 재주가 있다고 자부하면 재주 있는 이의 임무가 그에게 돌아간다. 이와 같은 부류가 이루 다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앞에서 말한 몇 가지 사례는 사람의 일에 그것보다 큰일이 없는데도 오히려 그 이름을 빌리고는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자그마한 건물 한 채이겠는가.

그리고 천지 만물은 주인이 없던 적이 없으면서 또한 주인이 있던 적이 없었다. 주인이 없던 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터럭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되고, 주인이 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말하자면 온 천하 모두 환영(幻影)과 같은 것이다. 내가 이 정자를 가지고 공회가 주인이라고 일컫는다면 공회는 실제로 소유한 적이 없었고, 정자를 가지고 공회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환영과 같은 물건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이 아님을 또한 누가 알겠는가. 우선 공회를 정자가 있고 정자가 없는 사이에 처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 둘의 병존을 지각한 채 살아가게 하여라.”

이 말에 공회는 크게 웃었고, 나도 크게 웃고서 기록하였다.  
- 채제공, 「공회정기」 -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의인화를 통해 주체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주체가 되어 행위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대상에서 축발된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특정한 관점을 논박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정적인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이 가진 의미가 끊임없이 변화함을 강조하고 있다.

## 2.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lt;보기&gt;

장면에는 전경과 배경이 있다. 전경은 다른 대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거나 정지한 물체를 가리키며, 이러한 대상을 인지시학에서는 탄도체(trajector)라 부른다. 배경은 전경의 참조점으로서 탄도체의 경로나 장소를 특징지어 주는 정지된 환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시적 화자는 배경보다 인지적 현저성이 높은 전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시선의 전환을 통해 전경과 배경의 역전이 일어나면 기존에는 의식되지 않았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가령 꽃 안에서의 탄생과 이별의 경험은, 꽃을 이루는 요소들이 떠난 뒤 포착된 또 다른 세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화자는 대상에 대해 동질성을 느껴 시선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기도 한다.

- ① 꽃을 이루는 부분인 ‘수술과 암술’ 그리고 ‘꽃잎과 꽃받침’이 떠나가는 모습에서, 화자가 대상을 전경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군.
- ② 마지막엔 ‘작별의 손’을 흔드는 ‘풀’은, 배경에 대해 정지하지 않은 물체도 전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인지시학에서는 이를 탄도체라 보겠군.
- ③ ‘골목’이 인사도 없이 떠난 뒤 ‘길’이 드러난 모습에서, 화자가 현저성이 낮은 배경을 현저성이 높은 전경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전경과 배경의 역전에 의한 결과겠군.
- ④ 화자가 삼엽충의 발바닥과 오물 ‘사이’로 눈을 돌린 것에서, 고생대와 현대의 만남과 혼란이라는 또 다른 세계를 읽어내는 것은 시선의 전환으로부터 비롯되겠군.
- ⑤ ‘산소’와 ‘수소’같이 움직이는 모든 대상이 떠나자 ‘호올로’ 서 있는 길이 부각된 모습에서,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군.

## 3. 다음에 따라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에서는 고향을 떠나 선상에 탑승하여 경험한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

- ① ‘바다’의 속성을 ‘해협 밑 잠자리’로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② ‘높다란 해’가 ‘새파란 하늘’에 ‘한낮의 커브’를 꺾는 모습에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 ③ ‘물새’가 ‘멀리 날아가는 곳’이 ‘부산 부두’임을 가리켜, 시각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현실적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태양’이 ‘뱃전’을 치고 뒤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적지인 고향에 도착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로맨티시즘’을 품고 ‘일본 열도의 긴 그림자’를 바라본다고 추정하면서,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4.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해 소유의 주체와 향유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서사의 전제로 설정되고 있다.
- ② 마음의 정자에 공회정이라는 이름을 붙이자 사정을 아는 이들도 실제 정자가 있다고 믿는다.
- ③ 저자는 후세의 사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름과 실질의 본래적 위계가 역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거로 삼는다.
- ④ 모든 것이 이미 누군가의 것이라면 만물에는 주인이 있던 적이 없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
- ⑤ 있음과 없음 사이에 머물게 하는 것만으로 소유 자체의 공허성이 해소된다는 것이 문제 상황에 대해 저자가 내린 최종적 처방책이다.

##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앞부분의 내용] 형식은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상을 당하여 외톨이로 자라왔다.

형식은 외롭게 자라났다. 형식은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형제 자매의 사랑도 모르고 자라났다. 그뿐더러 형식에게는 사랑하는 동무도 없었다. 나이 같고 성미가 서로 맞는 동무의 사랑은 여간 형제 자매의 사랑에 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은 일정한 처소에 있지 아니하여 그러한 동무를 사귈 기회가 없었고 또 불쌍하게 돌아다닐 때에는 동무 될 만한 아이들이 형식을 천대하여 동무로 여겨 주지를 아니하였다.

[A] 형식이 열두 살 적에 그 족제 하나를 심히 사랑한 일이 있었다. 족제는 형식과 동갑이요, 이전에는 글도 같이 읽었다. 한번은 형식이가 그 족제의 집에서 놀다가 밤이 깊었다. 그때 형식은 그 족제와 한자리에서 자게 된 것을 더 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숙소 되는 당숙의 집에 갈 수도 있겠마는 어두워서 못 가겠다고 떼를 쓰고 같이 자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족제는 네 옷에는 이가 많더라하고 크게 소리를 쳐 온 집안 사람이 다 소리를 듣게 하였다.

[ⓑ 생략된 부분의 내용] 영채의 모친은 영채를 낳고 두 달이 못되어 별세하였다. 해서 일찍이 철모르는 어린 시절 영채는 방기의 고통을 경험한다. 영채는 박 진사의 제자 흥모가 행한 강탈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투옥된 아버지를 구하고자 몸을 팔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기생이 된 사실이 아버지가 자살을 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자 그로부터 더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

[B] 영채는 지금 자기가 일생에 잊히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그리던 형식을 만났으니 지금까지 가슴속에 간직하였던 회포를 말하리라 하였다. 세상에 아직도 제 회포를 들어 줄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영채는 더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러나 영채는 다시 생각하였다. 형식의 얼굴빛을 보매, 자기를 만난 것을 반가워하는 것과 자기의 신세를 불쌍히 여기는 줄은 알겠마는 만일 자기가 몸을 팔아 기생이 되어 오륙 년간 부랑한 남자의 노리개 된 줄을 알면 형식이가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하랴. 그래서 너는 더러운 사람이라도. 나와 가까이할 사람이 아니로다 하고 얼굴을 찌푸리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매, 영채는 더 말할 용기가 없어졌다. 지금까지 죽은 부모와 동생을 만나 본 듯한 반가운 정이 스러지고 새로운 설움과 새로운 부끄러움이 생긴다. 아아, 역시 남이로구나. 형식이도 역시 남이로구나. 마음 놓고 제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말하지 못하겠구나 하였다.

[ⓒ 생략된 부분의 내용] 열두 살이 넘어 형식은 부모를 여의고 의지가지없이 돌아다니다가 박진사가 공부시킨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게 된다. 형식은 박 진사의 신임을 얻어 영채의 배필이 되라는 혼약을 받게 된다, 그런데 박 진사의 제자 흥모가 일으킨 강탈사건으로 인해 박 진사가 감옥에 갇히자 형식은 또 다시 표류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아까 석짐쯤 해서 어떤 어여쁜 아가씨가 선생을 찾아오셨는데 머리는 여학생 모양으로 하였으나 아무리 보아도 기생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친구를 사귀는지.”

“어떤 아가씨? 기생?” 하고 형식은 고개를 기웃기웃하며 구두끈을 끄르고 마루에 올라서면서,

“서울 안에는 나를 찾아올 여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아마 잘못 알고 왔던 게로구려.”

“에그, 아주 모른 체 하시지. 평양서 오신 이형석 씨라고, 똑똑히 그러던데.”

(중략)

형식은 번개같이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눈물을 거두고 그 앞에 엎더져 우는 영채를 보았다. 그때--- 십 년 전에 상긋상긋 웃으면서 어깨에도 매달리고 손도 잡아 끌며 오빠 오빠 하던 계집아이가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되었다. 그동안 칠팔 년에 어떠한 풍상을 겪었나.

(중략)

[C] “돌아가시다니,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옥에 가신 지 이태 만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보름 만에 오라버니 두 분도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략)

그러다가 오늘 우연히 만나서 차림새를 보아하니, 아무리 하여도 기생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 그러면 벌써 여러 사람에게 몸을 더럽혔으려니, 만일 그렇다 하면 자기 아내 못 되는 것이 한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애쓰던 은인이 혈육이 이처럼 윤락하게 됨이 원통하여 아까도 슬퍼 소리를 내어 운 것이요, 또 그 동안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려 함도 행여나 기생이나 아니 되었으면 하는 희망과 설혹 되었다 하더라도 옛사람의 본을 받아 송죽 같은 정절을 지켰으면 하는 희망이 있음이라. 이제 형식과 영채는 피차에 저편의 속을 알고 싶어하게 된 것이라.

“그래 그 다음에 어찌 되었습니까.”

- 이광수, 「무정」 -

##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형식은 족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 ② 박 진사는 자신의 제자가 일으킨 사건에 연루되었다.
- ③ 영채는 형식이 방기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 기대하였다.
- ④ 형식은 영채와의 혼약을 지키고자 박 진사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 ⑤ 형식은 박 진사의 부고를 영채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 6. [A]~[C]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제시된 사건은 ⑤에서 형식이 찾아간 박 진사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다.
- ② ⑥에서 영채가 겪은 비극은 [C]에서 노파의 말을 통해 형식에게 전달된다.
- ③ ④에 제시된 사건은 [A]에서 형식이 족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④ [B]에 제시된 사건은 [C]에서 다른 서술자의 관점을 통해 재진술된다.
- ⑤ [C]에 제시된 형식의 태도는 [B]의 복선으로 기능한다.

## 7. &lt;보기&gt;를 참고하여 윗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lt;보기&gt;

우리가 진정으로 성취하는 것들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차원에서 욕망하고 갈구했던 것들이다. 무의식은 경험과 감정의 저장고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이며 고통스러운 것들은 너무나 강렬하기에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무의식은 억압을 통해 생기며, 불쾌한 사건들을 의식으로부터 지우는 데서 시작된다. 소설 <무정>에서 보이는 인물들의 방어기제는 가족관계의 문제로 인해 어렸을 적 방기의 상처를 입은 결과로 발현된다. 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식으로부터 발현되는 방어기제 가운데 친밀감의 거부는 형식과 영채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기제의 한 유형이다. 가령 형식은 한 번은 부모에게 다른 한 번은 박 진사에게 방기의 고통을 받는데, 이 시점부터 형식은 방기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친밀감을 거부함으로써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한다. 이때 자신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밀감을 거부하는 정도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 ① 형식이 열 살이 되기도 전 경험한 ‘부모상’에서, 불쾌한 사건이 무의식 속에 영원히 남은 채 관련된 경험이나 감정들이 고스란히 의식의 영역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형식에게 지금까지 간직했던 ‘회포’를 들어주리라는 영채의 소망은, 그녀의 무의식이 그로부터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명령하는데서 비롯되었겠군.
- ③ 노파가 영채의 곁모습을 보고 ‘아무리 보아도 기생’같다고 한 것은, 형식에 비해 정서적 거리감이 먼 영채에 대해 친밀감을 거부함으로써 나타난 무의식 내부의 방어기제를 보여주는군.
- ④ 형식이 가족 문제로 인해 방기의 두려움을 경험했음에도 ‘공부 시킨다는 말’을 듣고 박 진사 집에 찾아간 것은, 타인을 자신과 가까운 사이로 보아 내적 친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겠군,
- ⑤ 외형적인 단서를 토대로 ‘벌써 여러 사람에게 몸을 더럽혔으려니’하고 영채의 순결을 의심한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해악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수반된 결과겠군.

## \* 확인 사항

- noqeli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